

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방안

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황지혜, 신나리, 김지아, 황경원*

*교신저자: kirk99@korea.kr, 043-719-7160

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한다. 쯔쯔가무시증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, 라임병, 진드기매개뇌염 등이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3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4월에서 11월까지 환자가 발생하며,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. 2021년 기준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전년 대비 약 28.6% 증가하였고, 치명률은 SFTS의 경우 평균 18.4%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[1].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중 농작업, 텃밭작업, 주말농장 등 농림축산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고령층이 약 50%를 차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가장 주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방·관리 정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안내를 위한 교육·홍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맞춤형 콘텐츠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.

또한,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SFTS는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.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에 SFTS 추정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된 경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 15명이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, 2019년 일본에서는 SFTS 감염동물을 진료하던 수의사가 2차 감염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[2].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2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·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를 통해 배포하였다. 또한, 올해 3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(농림축산검역본부),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및 반려동물 보호자의 SFTS 2차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「사람-동물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」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, 고위험군(동물병원 종사자, 반려동물 보호자, 애견미용사 등)의 감염병 예방 관련 인식제고를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 등도 개발·배포한 바 있다.

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및 매개체 증가, 캠핑, 등산, 텃밭활동 등 야외활동 확대에 따른 진드기 노출위험 증가에 따라, 향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[3]. 이에, 질병관리청은 2022년 7월에 농촌진흥청과 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, 감시, 역학조사, 연구 등 전방위에 걸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.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, 그 일환으로 올해는 임업인, 숲 해설가,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참고문헌

1. 질병관리청. 2022년도 진드기·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. 2022.
2. K Kida, et al. A Case of Cat-to-Human Transmission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. JIID. 2019;72(5):356-358.
3. 질병관리청.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보고서. 2022.